

내몽골의 하나님 용어

고은이*

1. 서론

현재 몽골어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7백만 이상(몽골국의 2백 50만 포함)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내몽골을 중심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몽골어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방언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다. ‘하나님’ 또는 ‘신’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몽골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존재한다.

성경 번역자에게 있어 성경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를 현지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지 교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미 외몽골에서는 성경 번역 팀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많은 언쟁이 일어난 바 있으며 내몽골에서도 이미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염원하면서, 이 글에서는 중국에 사는 몽골인들, 특히 내몽골 자치구에 거주하는 몽골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을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역사적 고찰

종래의 성경 번역본 및 신앙 책자에 사용된 ‘하나님’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2.1. 성경 번역본

내몽골 자치구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나온 각종 성경 번역본에서 ‘하나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음의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1827년 신약성경: ‘데드’ (Deed)

1833년 창세기: ‘보르항’ (Burkhan)을 큰 글자로 표기

* WEC 국제선교회

1840년 구약성경(‘Swan & Stalybrass’ 번역본): ‘보르항’(Burkhan)

1846년 신약성경: ‘보르항’ (Burkhan)

1913년 울란바토르에서 고친 성경 신약성경 5권: ‘보르항’(Burkhan)

1952년 신약성경(Shin Testament 홍콩판: ‘Ganzel’ revision): ‘보르항’(Burkhan)

1990년대 배포된 간추린 성경 이야기: ‘사히올승’(Sakhiulsan)을 사용했다. (출처 불명)

2003년 신약성경 (독일인 ‘Holga’본): ‘보르항’ (Burkhan)

2004년 신약성경(ABTC 본): ‘데드 텡게르’ (Deed Tenger)

2005년 신약성경(예정: 내몽골 성서공회): ‘보르항’(Burkhan)

그동안 출간된 10종의 성경 번역본 중에서 7종이 하나님의 용어로 ‘보르항’을 채택했으며, 그 외에 ‘데드’와 ‘데드 텡게르’ 그리고 ‘사히올승’을 선택한 번역본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지난 180여 년 동안 초창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내몽골인들을 위해 이루어진 성경 번역 역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보르항’이 가장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가정교회에서 사용되는 소책자들

- 1) 출처 불분명의 전도지에 ‘보르항’을 사용함.
- 2) 독일인이 인쇄한 전도지에 ‘사히올승’을 사용함.
- 3) 간추린 어린이 성경(칼라 그림 포함)에 ‘사히올승’을 사용함.
- 4) ‘버르지그’가 번역한 시편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동시에 사용함(예정 텡게르, 우능에젠[‘진리의 주’라는 뜻] 등등).
- 5) 러시아에서 인쇄한 ‘믿음의 기초’라는 성경공부 책자(독일인 홀가에 의해 만들어진 내몽골 문자로 된 책. 1993년)에 ‘보르항’을 사용함.

3. 외몽골 및 러시아의 몽골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3.1. 외몽골

1990년 존 기븐스(John Gibbens)의 신약성경: ‘유르튼칭 에쟁’(Yurtentsiin Ezen)

1996년 몽골 성경 번역 협회 (Mongoli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의 신약성

경: ‘보르항’.

1998년 일본인 ‘키타무라’의 신약성경: ‘보르항’

2000년 몽골 성경 번역 협회에서 발행한 신구약 전서: ‘보르항’

3.2. 러시아

러시아의 몽골인 절대 다수는 브리야트 공화국에 모여 산다.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경 번역 단체인 Institute for Bible Translation (IBT)은 ‘하나님’에 대한 용어로 ‘보르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

4. ‘하나님’ 용어들의 의미 비교

4.1. 사전적 의미

몽몽사전과 몽중사전, 몽영사전을 통해 ‘하나님’ 용어들의 의미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이름	몽몽사전 (Ts. Norjin, 1997)	몽중사전 (내몽골 대학)	몽영사전 (외몽골판) Ch. Ganhuyag, 2002
보르항 (Burkhan)	부처, 석가모니의 이름	佛	1. God, deity, 2. Buddha, 3. statue
텡게르 (Tenger)	하늘, 믿음의 대상, 신이 거하는 처소	天, 天空	sky, heaven
데드 텡게르 (Deed Tenger)	미신에서 나오는 믿음의 대상	上天, 上帝	없음
텡게르 아브 (Tenger Aav)	없음	없음	없음
보르항 텡게르 (Burkhan Tenger)	초월적인 존재인 믿음의 대상	老天, 上帝	없음
허르머스트 텡게르 (Khormost Tenger)	최상층의 신	없음	없음
사히울승 (Sakhiulsan)	만물을, 관찰, 도와주는, 마술적 힘의 소유자.	神, 神仙,	없음

1) How to translate “God” in Buryat: IBT’s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4.2. 민중에 통용되는 개념들

몽골인들은 사전적인 개념보다는 생활적인 개념에 더 익숙하다. 민중에 통용되는 개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름	몽골인들이 이해하는 개념(20-50대의 연령)
보르항(Burkhan)	최고 높은 부처, 신, 최고의 신
텡게르(Tenger)	하늘, 영적이고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늘
데드 텡게르 (Deed Tenger)	높은 하늘 (공간적 개념)
텡게르 아브 (Tenger Aav)	비를 제공해 주는 자연신
보르항 텡게르 (Burkhan Tenger)	신, 자연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
허르머스트 텡게르 (Khormost Tenger)	옥황상제, 기독교의 신
사히울승 (Sakhiulsan)	마술적 힘의 소유자로서 신의 부리는 사자.

4.3. ‘하나님’ 용어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

(1) 보르항(Burkhan): 부처, 또는 신으로 이해함.

보르항은 옥황상제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신으로 여러 신들 중 최고의 신으로 추앙된다. 민간에서 신에 대한 용어로 민중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며, 가장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단어다.

(2) 사히울승(Sakhiulsan): 영적인 존재이며 초월적인 신으로 이해되지만 최고 신의 의미는 없다. ‘부적(符籙)’ 혹은 ‘신(神)의 사자(使者)’의 의미로 더 널리 이해된다.

(3) 텡게르(Tenger): ‘하늘’의 의미와 함께 ‘신’의 뜻도 있지만 현대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늘(天)’의 의미로 사용되며 ‘신’이 거주하는 처소로 인식된다. 무속 신앙에서 ‘보르항’ 다음으로 높은 신적인 존재로서 자연신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신으로 여겨졌다.

(4) 데드 텡게르(Deed Tenger): ‘데드’는 ‘위(上), 상층’의 뜻이니 ‘데드 텡게르’

란 문자적으로 ‘상천(上天)’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무속신앙(巫俗信仰)에 근원하며 본래 공간적 개념을 갖는다. 몽골인의 전통적 사머니즘에서 ‘데드 텡게르(上天)’는 천국이며 ‘도드 텡게르(Dood Tenger, 下天)’는 지옥이었다. 그러나 ‘데드 텡게르’는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몽골인에게 ‘데드 텡게르’는 신의 의미로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단어다. 중국어에 꽤 익숙한 몽골인들이 이 단어를 처음 접하면 중국어의 상제(上帝)에서 번역한 말일 것으로 짐작한다.

(5) 텡게르 아브(Tenger Aav):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니, ‘텡게르 아브’는 ‘천부(天父)’란 의미를 갖는다. 자연 현상에 관련하여 생각하는 일종의 최고 신 개념으로 사용되나 존중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몽골족의 주요 거점으로서 내몽골 자치구의 동북쪽에 위치한 퉁랴오 지역의 바오롱산에 있는 삼자교회에 출석하는 몽골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용하고 있다.

(6) 보르항 텡게르(Burkhan Tenger) 혹은 텡게르 보르항: 문학서적에서 종종 발견되는 단어로, 자연 현상 및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리하는 신으로 자연신의 통칭이다. 특별히 한 신을 두고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몽골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7) 허르머스트 텡게르(Khormost Tenger): ‘허르머스트’란 문자적으로 ‘최상층 하늘의 신’이란 뜻이다. 신문과 잡지 등에서 기독교의 신을 지칭하는 말로 가끔 등장한다. 종교 사전에서도 ‘기독교의 신(上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단어는 한편 ‘옥황상제’의 뜻도 갖고 있다.

(8) 유르튼칭 에젠(Yertunztin Ezen): ‘우주의 주인’이란 뜻으로 외몽골의 첫 성경인 존 기븐스 역본에서 사용한 말이다. 오늘날 내몽골에서 이 단어는 매우 생소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내몽골의 1952년판 신약성경에서는 세상의 신인 ‘사탄’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린도후서 4:4).

5. ‘보르항’에 대한 몽골인들의 견해

이제 민간에서 신에 대한 용어로 민중이 가장 친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보르항’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다.

5.1. ‘보르항’ 반대론

기독교인들 중에 이 용어를 반대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보르항’의 기본적 뜻이 불교에 뿌리를 둔 ‘부처’라는 데 있다. 사실 40대 후반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먼저 ‘부처’를 연상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보르항’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Buddha)에서 파생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즉, 산스크리트어에서 붓다라는 단어에 포함된 dd 음이 r로 변하면서 Buddha가 Burha가 되고 결국 Burkhan으로 변천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는 또 보르항이 각종 불상(statues)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르항에는 유일신의 개념이 없다고 말한다.

몽골인들 가운데 보르항을 신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이 대체어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용어는 ‘사히울승’이다. 즉, 사전에 ‘사히울승’을 찾아보면 신이라는 뚜렷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 외에는 대체어가 없다는 것이다.

선교사들 중 어떤 이들은 몽골 신자들이 보르항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면 신자들이 부처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복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란 뜻으로 ‘보르항’이라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더라고 말하는 선교사도 있으며, 복음을 전해 들은 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부처와 혼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하는 선교사도 있다.

5.2. ‘보르항’ 찬성론

내몽골이 불교 중심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개조된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국에 있는 몽골인들 가운데 무신론 공산주의의 교육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르항’을 부처보다는 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보르항’을 불교와 크게 연관 짓지 않고 ‘신’의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인다. 무신론은 ‘보르항(神)구이(없는) 우젤(사상)’으로 표현된다.

그뿐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은 ‘보르항’을 전통적으로 최고 신으로 이해해 왔다. 또 보르항이 ‘부처’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다는 설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몽골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책이라 할 수 있는 ‘몽골비사’는 몽골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씌어졌는데, 이 책에 보르항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다.

‘보르항’은 몽골인들의 사상과 마음에 이미 자리를 잡은 최고의 신이다. 만일 다른 종교의 신을 가리킬 경우가 생기면 “그 종교의 ‘보르항’은 무엇이라고 지칭하는가” 라고 말한다. 즉 ‘보르항’은 최고의 신명(神名)의 대표적인 용어이다. 이 세대 뿐 아니라 역사상에서도 그렇다. 역사상 대부분의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르항으로 번역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 상황은 외몽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95퍼센트 이상의 기독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보르항으로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내몽골 성서공회에서는 2004년 12월 내몽골 교회의 지도자 아홉 명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였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의 반대자도 없이 ‘보르항’이 하나님의 명칭으로 채택되었다. 이날 제시되었던 선택 가능한 용어들은 ‘보르항’을 비롯하여 ‘텡게르,’ ‘데드텡게르,’ ‘허르머스트 텡게르,’ ‘보르항 텡게르,’ ‘텡게르 아브,’ ‘사히올승,’ ‘몽흐텡게르(Munkh Tenger: ‘영원한 하늘’이란 뜻), ‘허흐 텡게르(Huh tenger)’ 등 모두 아홉 개였다. 참석자들의 연령층은 25세부터 53세까지, 남자 5명, 여자 4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히올승’이나 ‘데드 텡게르’를 비롯한 다른 용어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이미 교회 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익숙한 말이었던 ‘보르항’의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려는 보수성을 나타냈다.

이들은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참 신 곧 ‘보르항’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전도할 때 ‘보르항’이라는 말 때문에 문제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사히올승’이라든지 ‘데드 텡게르’ 등의 잘 알려지지 않은 말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어떤 다른 도를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고 경계한다고 한다.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보르항이라는 단어로 복음을 전할 때 들은 이들이 대부분 쉽게 알아듣는다”는 사람도 있고, “간혹 부처로 혼동하는 경우 ‘보르항 텡게르’ 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텡게르 아브’를 사용하는 동북부 내몽골 기독교인들은 ‘보르항’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부처’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지만 조금만 설명해 주면 별 거부감 없이 수용한다고 한다.

6. 내몽골 성서공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르항’으로 선택한 배경

- 1) 여러 신명(神名) 중 최고(最高), 전능, 전지한 신을 찾으려 했다. 설명 (5. 2.)
- 2) 몽골 현지 기독교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서 찾으려고 했다. 설명 (2. 2.)

- 3) 몽골 현지 기독교인 중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용한다. 설명 (6. 2., 6. 3.)
- 4) 역사 속에서 성경에 이미 사용된 용어를 중요시 여긴다. 설명 (6. 1.)
- 5) 모든 몽골인들이 알고 있는 용어를 선정한다. 설명 (6. 5.)
- 6) 성경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에서 다른 용어와 충돌이 없는 용어를 선정한다. 설명 (6. 3.)
- 7) 합성어를 사용하면 문장에 그 단어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용어를 선정한다.

6.1. 보르항을 사용한 대표적인 역본들

21세기 이전에 내몽골과 외몽골, 또 러시아(브리야트)에서 몽골어로 번역된 성경 중 영국인 존 기븐스(John Gibbens)의 번역본과 1827년의 신약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보르항’을 사용했다. 보르항을 사용한 대표적인 역본은 1840년대의 구약성경(Swan & Stalybrass 본), 1846년의 신약성경, 1833년의 창세기, 1952년 홍콩판 신약성경 <신 테스타멘트>, 1995년판 외몽골 신약성경, 1998년판 일본인 ‘키타무라’ 번역본, 2000년 외몽골 신구약 성경전서 등이다.

6.2. 몽골 기독교인들의 보르항 선택

성경 번역 선교사뿐 아니라 몽골 기독교인들도 보르항을 하나님 또는 신의 명칭으로 가장 선호했다. 즉 몽골인 가정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신앙 소책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나 신을 ‘보르항’이라고 번역했다. L 선교사가 처음 기독교인들을 접했을 때 이들이 사용하던 용어는 ‘보르항’이었다. 이들은 ‘제칠일 안식교’에서 나온 4명의 청년, 중국 삼자교회를 다니던 50대 여성이다. 이후 다른 곳에서 온 기독교인들도 당시 모두 ‘보르항’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내몽골의 바잉노르, 어르더스 지방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이전에 그들은 외국인 선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04년 ‘데드 텡게르’를 사용하는 신약본이 이들에게 보급되기 이전에 이곳 지방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르항’을 자연적으로 상용하고 있었다.

또 내몽골 수도 후호트 시 중국 삼자교회 안에도 몽골족 모임(현재 성도 숫자는 30명 정도)이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보르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인의 영향으로 ‘사히올승’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2004년판 신약성경 번역에 가장 도움을 주었던 조력자의 주장으로

‘데드 텡게르’를 사용하고 있다.

6.3. 성경 번역상 다른 용어보다 ‘보르항’이 적절하다

1) ‘보르항’은 성경의 다른 핵심 개념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텡게르’라는 말을 사용해서 번역하면 그 말에 ‘하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하늘’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드 텡게르’라는 용어를 써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번역하면, “위의 하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약간 혼란스러운 일차적 뜻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데드 텡게르’가 ‘위의 하늘’이라는 뜻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니엘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ABTC의 번역 원칙대로 옮기자면 ‘하늘에 계신 위의 하늘’이라는 번역이 나오게 된다.

성경에는 ‘하늘’과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만도 130절에 달하는데, 번역할 때 ‘하늘’과 ‘하나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독자들에게 공간적인 ‘하늘’과 인격적인 ‘하나님’ 사이에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보르항’은 복수로서 ‘신들’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만 ‘신들’(theoi: gods)이란 말이 9번 나오는데, ‘보르항’의 복수는 ‘보르하드’이므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만 ‘텡게르’는 복수를 쓰면 ‘하늘들’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어색해진다. 그래서 ABTC 역본에서도 ‘신들’이란 말을 표현하기 위해 ‘데드 텡게르’를 쓸 수가 없었으므로 ‘보르하드’라고 표현했다. 즉 ‘신들’이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보르항’을 차용한 것이다. 이것은 ‘보르항’이라는 말에 ‘부처’ 외에 ‘신’의 뜻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구약성경에는 ‘다른 신들’(엘로힘 아헤림: other gods)이라는 표현이 70여회 나온다. 위에서 살펴본 ABTC의 번역 원칙을 따르면 그때마다 ‘보르항’을 차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도 ‘보르항’은 부처가 아닌 신이 되는 것이다. 만일 보르항에는 ‘부처’라는 뜻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신들’은 ‘다른 부처들’이 됨으로서 원래의 하나님 즉 ‘데드 텡게르’도 ‘부처’가 되고 만다.

6.4. 몽골 현지 교회에서 ‘보르항’을 선호한다

내몽골의 수도 후호트에서 외국인에 의해 세워진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두

몽골인 교회(합쳐서 현재 성도 숫자는 200명 정도)에서 현재 ‘보르항’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 교회의 신자들은 중국 정부교회의 몽골인 모임에서 ‘데드 텡게르’를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데드 텡게르’에 신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나, 이 단어는 공간적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텡게르’가 몽골인의 신적 개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용어가 ‘몽흐 텡게르’(영원한 하늘), ‘허흐 텡게르’(푸른 하늘), ‘데드 텡게르’(상천) 등은 다른 말과 복합된 형태로 나타날 때는 미신적인 요소와 함께 천신 숭배사상이 짙어진다. 또한 ‘텡게르’의 일차적 뜻은 ‘하늘’(heaven)이기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상 용어로 사용하기 곤란하며 ‘텡게르’가 신적 개념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르항’의 밑에서 복종하는 관계이다.

6.5. 몽골인들의 심성에 최고 신의 개념으로 깊이 각인됨

‘보르항’이 ‘부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몽골인 각계각층, 남녀노소, 동서남북으로 가장 널리 최고 신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임이 분명하다. 샤머니즘이 우세한 지역의 몽골인들뿐 아니라 그리고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 심지어 타종교와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도 ‘보르항’을 최고 신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몽골인들이 다급할 때, 무의식중에 튀어나오는 감탄사, 곧 영어의 “Oh my God”에 해당되는 말이 “보르항 미니!(Burkhan minee!)”이다.

7. 결론

내몽골인들에게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칭으로 ‘보르항,’ ‘사히울승,’ ‘데드 텡게르,’ ‘텡게르 아브’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은 없으며 모두 이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보르항’은 일차적 의미가 ‘부처’이며 불교적 색채가 짙고 ‘사히울승,’ ‘텡게르 아브’는 샤머니즘에 근거하고 있으며, ‘데드 텡게르’는 샤머니즘뿐 아니라 도교의 색채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내몽골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성경 번역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는 ‘보르항’이다. 또 외몽골에서 몽골어로 번역된 성경도 대부분 ‘보르항’을 사용했다.

보르항이란 용어는 ‘부처’란 의미가 강하여 일부 선교사들과 신자들의 반대를 받고 있지만, ‘신’의 개념으로 몽골 사람들의 심성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단어가

며, 외국선교사들이 오기 전 몽골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던 말로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과 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은 보르항에 불교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사히울승’이나 ‘테드 텡게르’는 현대의 몽골인들에게 아직은 낯선 단어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내몽골에서 성경 번역자가 채택할 ‘하나님’의 명칭으로 ‘보르항’을 추천한다.

히브리어의 ‘엘(el)’ 또는 그리스어의 ‘테오스(theos)’ 라틴어의 ‘데우스(Deus)’ 영어의 ‘갓 (God)’ 중국어의 ‘션(神)’ 역시 유대-기독교 아닌 이방신의 유래를 갖고 있지만 모두 성경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로 번역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 번역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인 것이다.

* 주요어

성경 번역, 몽골어 역본들, 신명, 보르항, 텡게르

Bible translation, Mongolian Versions, Mongolian equivalents for Deity, Burkhan, Tenger

* 참고문헌²⁾

몽몽 사전: Ch. Norjin, Mai. Muren; 『蒙古语词典』(Mongol hel bichigiin toil), 呼和浩特市: 内蒙古人民出版社, 1997, 11. 第1版. (참고한 쪽: Burkhan 1053, Tenger 2471, Deed Tenger 2564, Tenger Aav 2472, Burkhan Tenger 1053, Khormost Tenger 1495, Sakhiulsan 1924.)

몽중 사전: 关其格, 和平, 朝克吉勒图 (编写:内蒙古大学蒙古学研究院, 蒙古语文研究所), 『蒙汉词典』(增订本), 呼和浩特市: 内蒙古大学出版社, 1999. 6. (참고한 쪽: Burkhan 1053, Tenger 2471, Deed Tenger 2564, Tenger Aav, Burkhan Tenger 1053, Khormost Tenger, Sakhiulsan 1924.)

몽영사전: Ch. Ganhuyag, *Mongolian English Dictionary 2nd edition*, Ulaanbaatar: Project Monendic, 2002. (참고한 쪽: Burkhan 198, Tenger 930, Deed Tenger, Tenger Aav, Burkhan Tenger, Khormost Tenger, Sakhiulsan.)

2) 18호가 출간된 뒤에야 선교지에 있는 필자로부터 참고문헌 원고가 도착했다. 편의상 보관 파일에 내용을 덧붙여 둔다. (2006년 6월 7일, 편집자.)

<Abstract>

Inner Mongolian Equivalents for Deity

Eun-Yi Goh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Finding the word corresponding to the Hebrew *Elohim* and Greek *Theos* of the Bible is not only a difficult task for Bible translators, but is also an important work that affects the future of local churches to a considerable extent. There have already been lots of disputes over the differences in the term for the Deity among Bible translation teams in outer Mongolia, and such arguments have already begun in inner Mongolia as well. In hope that such disputes will ultimately lead to firmly establish the churches, this article has sought compare and evaluate the terms for Deity used among the Mongolians living in China, particularly the Mongolians residing within the inner Mongolian Autonomous District.

The most representative words used for referring to Deity by the inner Mongolians are ‘Burkhan,’ ‘Sakhiulsan,’ ‘Deed Tenger,’ ‘Tenger Aav,’ etc. Among them, none of them specifically refers to ‘God’ of Christianity alone, but all carry pagan implications. The primary meaning of ‘Burkhan’ is ‘Buddha’ and has a strong buddhist color to it; ‘Sakhiulsan’ and ‘Tenger Aav’ are words from shamanism; and ‘Deed Tenger’ not only implies shamanism but taoism as well.

Up till now, the term mostly commonly used to refer to Deity in various Bible translations targeting inner Mongolians is the word, ‘Burkhan.’ In addition, most Mongolian translations done in outer Mongolia have chosen the word, ‘Burkhan.’

Some missionaries and Christians object to using the word, Burkhan because of its strong implication of ‘Buddha.’ However it is the word that has been most firmly rooted in the hearts of Mongolians, carrying the concept of deity, and has been the word naturally selected and used by Mongolian Christians before the arrival of foreign missionaries. A lot of missionaries and Christians still in favor of using this word, and young Mongolians, in particular, do not give much meaning to its buddhist implications. On the other hand, words like ‘Sakhiulsan’ or ‘Deed Tenger’ are words unfamiliar to contemporary Mongolians. In this regard, the author recommends Bible translators in inner Mongolia to select the word, ‘Burkhan’ as the term for Deity.